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40원 하락한 1,284.20원에 마감

13일 환율은 전일대비 4.40원 하락한 1,284.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20원 상승한 1,290.80원에 개장했다. 간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하면서 상승 출발한 환율은 빠른 환율 상승세와 빅 피겨(1,300원)를 앞둔 부담,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1,291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경계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도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고물가와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지적함에 따라 환율은 1,280원대 초중반으로 레벨을 낮추었다. 달러 인덱스도 104.6선으로 레벨을 낮췄고, 역외 달러-위안 환율도 6.80위안대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장중 변동 폭은 9.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96.51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90.80	1291.00	1281.20	1284.20	1286.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5.42	1005.42	991.58	992.5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7.44	1339.59	1328.91	1337.0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8	-1	-4	-11.69
결제환율(수입)	0.2	-0.22	-2.81	-9.7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위험선호 회복에...1,27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84.20원) 대비 5.35원 하락한 1,279.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 회복 및 위안화 약세 진정에 연동하여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5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는 59.1로 예상(64.0)을 하회했다. 소비자가 판단하는 경기 현황과 전망이 모두 악화되면서 잠재적인 소비지출 감소 가능성이 부상

했다. 이에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란 기대에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위안화는 중국이 일방향적인 배팅을 경고하면서 6.8 레벨을 하회함에 따라 4월말부터 아시아 통화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달러/위안 급등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외환시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국 경계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였고, 이는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결제 등 결제수요는 하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73.00 ~ 1281.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41.6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35원 ↓
	■ 美 다우지수 : 32196.66, +466.36p(+1.4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5.5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46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